

김영록 “비전 선제시... 지역발전 선순환체계 확립”

올해 성과 통합의대 추진 등 꼽아
이차전지 국가첨단산단 지정 주력
전라남특별자치도로 지역발전 견인
미래 선도 벤처창업 프로젝트 추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각 분야 비전을
도민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
록 노력해 지역 발전을 일구는 선순환체
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
린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지난 1년 주요
성과로 △도예산 규모 12조9000억원으
로 2018년 이후 매년 평균 14% 성장 △도
민소득 17~13위에서 9위로 상승 △목포
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와 이에 따른 통합
대학교 국립의대 추진 △지방소멸위기극
복을 위해 전국 최초 인구청년인민국 신
설·만원주택 추진·출생기분수당 추진 등
을 꼽았다.

김지사는 “이와 더불어 기회발전특구
와 우주발사체국가산단,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활성화투자펀
드, 해상풍력발전단지도 순조롭게 추진되
고 있으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
지까지 지정된다면 전남이 역사적 대전환
속에서 크게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김지사는 또 “빛나는 지방시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특별자치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도달한다”며 “대구·경
북이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건이 되
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를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비전을 갖고 지역 발전을 끌어
가고 과별로도 비전을 잘 만들어, 이를 도
민에게 보여주면서 약속을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과를 내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합의에 대해서는
“전남도민이 염원한 국립의대 설립 길을
튼 두 대학의 쾌거”라며 “통합대학교 국립
의대 신설에 정부도 적극 지원 및 협조를
약속한 만큼 내년 3월까지 정원 200명 배
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면 도민 숙원
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두 대학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합하는 만큼, 앞으로 대학과 지
방이 상생·발전하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통합대학이 대한민국 유수의 국립
대를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토록
하자”고 밝혔다.

지역 벤처창업 육성 노력도 강조했다.

김지사는 “미래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과 기업 유치가 관건으로, 고흥 우주발사
체국가산단 MOU,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
스터 앵커기업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생적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전남 미래를 선도하도
록 벤처창업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
자”고 독려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서는 “이는 전남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며 “문학박람회, 문학관, 노벨
문학도시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장흥군과
잘 협의해 관련 분야 육성에도 앞장서자”
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수험생은 자유예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광주 국제고 3학년 학생들이 3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
린 ‘수험생은 자유예요!’에서 대형 풍선을 굴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연호 기자

‘시·도, 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

1면서 계속 또 △간접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15억원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억원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지원 추가 증
액 32억원 등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에 따
라 감액 또는 미반영된 사업의 증액안 반
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들과 만나 관련 안전을 지속 건의하고 있
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증액
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10일까지 여
야 간 합의가 잘 이뤄져서 호남권 SOC사
업 등 민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사업 증액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전남
도 또한 주요 사업 증액 반영을 위해 기제

부 및 국회 방문을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
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
원장은 “민주당의 감액안은 정부가 제출
한 예산안 원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
한 선택”이라며 “사실상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다
면 수정안을 도출해 관련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이 이뤄지더라도, 특별비 등
복구를 위해 소규모의 증액만 이뤄질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심쓰듯 주는 정부
예산은 받기보다는 감액안을 통과시키
고, 이후 추경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오자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이 진
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 현안사업 예
산 증액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전남도, 살처분 등 긴급 방역 나서 기본수칙 준수·경미증상 신고 당부

전남도는 강진 군동면의 육용오리 농장
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8일령 2만2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일 농장
주가 폐사 증가로 방역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검사
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
루엔자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

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
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
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
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농장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했다.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
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4일 오후
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

령을 내리고,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을 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바이
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고정식소독기와 고압분무
기 소독 등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
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는 강원 동해 1건, 충북 음성 1건,
충남 서산 1건, 인천 강화 1건, 영암 1건
등 총 5건이 발생했다. 오지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